

우리의 결제는 안거스님들 '외호'

바라밀현장

금강선림회 고불식

11월 8일 오후, 가을비가 함침 가야산을 물들인 단풍을 적시며 산사로 내리고 있는 동안, 해인사 대웅전은 방장 스님의 2003년 동안 거 결제 밧어를 듣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어느새 해인총림 방장인 법전(조계종 종정) 스님의 결제 밧어를 기다리는 스님들로 대웅전은 가득 찼고, 곳곳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웅전 처마 밑까지 대중들이 들어왔다.

이들 틈에는 이른 새벽 서울에서 출발해 해인사로 향한 금강선림회(회장 김일심행, 46) 회원들도 자리를 잡았다. 이날 결제하는 해인사 선원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리기 위해 밧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금강선림회 회원들은 긴 여정의 피로를 잊은 듯, 간접하게 두 손을 모았다. 법좌에 오른 법전 스님은 세 번 주장자를 내리친 후 법문을 시작했다. "금우(金牛) 화상이 항상 공양 때가 되면 밧을 들고서 큰방 앞에 가서 춤을 추고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이여! 밧을 먹으러 오라.' 금우 스님이 순수 밧을 짓고 춤을 추면서 사람들에게 밧을 먹으러 오라고 한 말이 참으로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이번 결제의 결제대중은 정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밧우를 펴고 공양하면서도 늘상이 화두를 놓치지 말고 항상 참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문이 끝났던 법전 스님의 '화두 놓치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도 마음에 고스란히 남았다. 축축히 젖은 낙엽을 밟으며 해인사 선원에 오르는 동안 수좌스님들의 수행 뒷바라지를 위해 결정한 금강선림회 회원들의 마



◇금강선림회 김일심행 회장이 8일 해인사 선원에서 대중공양을 위한 보시금을 선각스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해인사, 동화사 선원 대중공양 신명다해 수행 뒷바라지 다짐 "간화선 중흥에 밀거름 될 것"

음은 남달랐다. 외부인은 함부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선원을 금강선림회 회주인 선각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돌아보는 동안, 회원들은 90일 동안 치열하게 정진할 스님들을 그려보았다. 서너 시간 뒤엔 죽비 소리와 함께 생사를 잇는 치열한 정진이 이어질 선원에서 삼배를 올리고 나온 회원들의 표정이 좀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삼생의 업이 멸한

다. 오늘 선원을 돌아보니 일념으로 정진하시는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새 로워지고 불자로서 눈앞 고 청정한 스님들께 공양 올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환희심에 가득 찬 회원들을 지켜보던 김일심 행 회장은 "선원 스님들과

생사를 같이한다는 마음으로 신명을 다해 수행을 뒷바라지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계종 선방 수좌스님들의 정진을 후원하기 위해 지난 6월 결성된 금강선림회는 이날 처음으로 해인사와 동화사 선원을 찾아 대중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고불식을 대신했다. 교구분사 주지, 중앙종회 의원, 전국의 CEO를 비롯 이미 100여명이 회원으로 동참할 정도로 간화선을 중흥시키고 선원을 외호하겠다

는 금강선림회의 취지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해인사 선원에 대중공양을 올린 회원들은 해인사 도량과 해인사성보박물관을 돌아본 뒤 다음날 새벽, 법전스님께 화두를 받고 재가자 수행에 관한 법문을 들었다. 다음 날 동화사 선원 대중공양까지 회향한 김 회장은 "전국 91개의 선원을 한 곳도 빠짐없이 후원할 계획"이라며 "금강선림회의 발원으로 간화선이 중흥되고 나아가 한국 불교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스님들에 대한 불신으로 승가 전체가 폄하되고 있는 요즘, 금강선림회의 발원은 승가 내외의 선행(善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스승 화두를 참구하는 재가 수행자로서, 또 수행승을 외호하는 호법신장으로서 정진하겠다는 금강선림회의 활동에 줄 · 재가 선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인사=천미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타타오 스님 (F)

여성불자 사회봉사 기회 제공

태국의 사원들은 남성과 소년들을 위해서 종교적, 현실적인 교육을 시키고 은퇴후에도 귀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하지만, 여성 불자들에게는 의지할 수처가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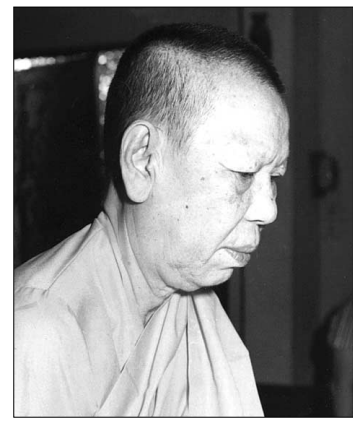
따라서 여성 수행자들은 그들의 공동체인 사원에서 여성 불자들을 교육하거나, 여성들의 가정문제나 개인적인 고민들을 상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을 원했다. 비구니가 사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했기에, 타타오 스님이 건립한 송다르마 카리아니 사원에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여성 불자들이 사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오랜 불교국가인 태국도 더이상 외면할 수 만은 없었다.

그러나 대다수 태국 비구 스님들은 아직도 비구니 교단이 성립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타타오 스님이 젊은 황색 법복을 입고 여성 불자들을 위한 사원을 열었을 때, 비구 교단에게 들어가야 할 특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교단과 시 당국

별이 적지 않음에도 태국의 일부 학식 있는 소장파 비구 스님들은 여성 불자와 비구니 교단을 향한 낡고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타타오 스님은 "비구니 문제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소장파 비구 스님들이 원로회의 석상에 앉게 되는 그날이, 태국 비구니 교단이 성립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고 전망한다.

방콕 탐마사트 대학 카빌성 교수가 발행하는 <국제 여성 불자 운동 회보>도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구니 교단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사회 봉사에 참여하여 비구니라는 편견을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태국의 여성들이 중국대만의

법계를 받고 나서 청정한 실현을 통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다." 오늘날 태국에는 비구니 대신 '마에 지(Mae Ji)'라는 재가 여성 수행자들이 존재한다. 사원 내에 거주하면서 흰색 법복을 입고 삭발한 이 여성 불자들은



◇타타오 스님

사원 건립해 교육·상담 공간 활용

비구교단 특권침해 이유로 비난 받기도

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 태국 교단의 최고지도부인 장로회의의 조사에 의해 그녀의 무죄가 입증되고 난 이후에야, 정부와의 갈등이 수그러들 정도였다.

하지만 타타오 스님이 중국(대만) 법계의 비구니계를 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교단은 여전히 그녀의 수계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녀는 지금도 상좌부 비구니가 아닌 중국 불교의 비구니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태국의 교단은 수직구조로 조직되어 있으며, 주로 정부의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말지 않아 태국 불교의 남녀 평등은 어느 정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 불자에 대한 차

로서, 10계 중 5계나 8계를 스스로 수지하고 출가자와 재가자의 교양역할을 하고 있다. 1만여명에 달하는 '마에 지'들은 스리랑카의 진보적 여성 불자들이 조직한 '다사 실 마타보(10계를 지키는 여성 교단)'와는 달리, 아직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좌부 불교의 여성 불자들이 사미니계 이상의 비구니계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불교의 비구니로부터 계를 받아야 한다. 태국을 비롯한 상좌부 불교의 비구교단은 비구니 교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소송의 울장을 따르는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김재경 기자

쿵더쿵~ 선행은 소리없이

대구남구종합복지관 '쇠소리 풍물 자원봉사단'



◇쇠소리 풍물 자원봉사단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풍물공연을 펼치고 있다.

소리있는 풍물놀이로 소리없는 선행을 실천해온 31명의 봉사단이 있다. 대구남구종합복지관의 '쇠소리 풍물자원봉사단(단장 김하태)'이 바로 그들. 봉사단은 99년 창단된 이래 3년이 넘도록 불우이웃에게 사랑의 소리를 전하며 꾸준한 '풍물봉사'를 펼쳐왔다.

대청 양로원등 위문공연 지역문화행사에도 동참

이들은 풍물모임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비정기적 공연봉사를 벌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추위를 녹여줄 사랑의 소리를 전하고 싶어서" 이 같은 봉사대를 결성하게 됐다. 매주 화 · 금요일 2시간에 이르는 강도높

은 전문교육을 받으며 실력을 쌓아온 풍물 자원봉사단은 '합천원곡피해복지관', 고령 사할린동포들이 거주하는 '대청양로원', 가톨릭 치매센터 등 4곳에서 정기 위문공연을 벌여왔다. 또한 수시로 남구정형사, 탈구별 축제행사, 초파일행사, 지하철 문화행사 등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문화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풍물봉사단이 아니다. 이들은 남구복지관에서 밀반찬 만들기 및 급식봉사에도 매주 2회 이상 참여한다. 김하태(58) 봉사대 단장은 "어려운 이웃을 소리와 땀방울로 어루만지는 것도 바라밀실현의 한 방편일 것"이라며 "봉사를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053)476-7700 김상재 기자

팔공산 호법신신 조성 권선문



[천룡정사에 조성할 호법신신]

귀의 상보하옵고

시방삼세 부처님과 모든 중생들이 한마음으로 기뻐하는 계절에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천룡정사에서는 팔공산 정맥에 위치한 기도도량이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도량으로 거듭나고 국민안과 민중생의 안녕을 위하여 팔공산 대석조 산신님 조성의 대발원을 세웠습니다.

산신 신앙은 우리민족 고유의 신앙으로 불교에서는 불법을 수호하고 대중들에게 복록을 전하는 호법신장 중에 한분입니다.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 이 천년불사에 지대하신 원화와 물심양면의 위법정신을 바라며 그 인연공덕으로 재수대길 신병쾌차 무병장수는 물론 발원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 합니다.

국내최대 호상 4m50cm(15尺) 산신 4m 80cm 원석으로 조성 (사찰매장 운영 하실 후주보살모십니다)

- 산신공덕비동참 : 3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751070-52-055271 ● 예금주 : 장기홍
- 문의 : 053)986-1355 / 전송 053)986-1356 / 휴대폰 017-533-1356
- ※ 동참지는 천년불사 공덕비 세워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59번지

팔공산 천룡정사 주지 지덕 합장

교승 정명주 스님의 佛氣 달마도

시방삼세에 늘 나누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여연한 모습 - 세계 최초로 교승 정명주 스님께서 친견한 시무상수 시방을 사신입니다.



장소 : 청송주왕산
시간 : 1998년도 AM 9시경
규격 : 가로 51cm x 세로 66cm
가격 : 100,000 원

佛心天地海風

가정에도 사무실에도 사업장에도 壽松 · 鄭 · 銘 · 주 스님의 견례 사친과 男 · 女 달마도를 걸어보세요.

온갖역은 근심걱정 사라지고 기쁨과 행운이 평평 솟는답니다.

- 佛心 : 부처님 가르침이란
- 天 : 높거라
- 地 : 깊거라
- 海 : 넓거라
- 風 : 바람이여니



규격 : 가로 51cm x 세로 66cm
가격 : 100,000 원



규격 : 가로 51cm x 세로 73cm
가격 : 100,000 원

귀의 상보하옵고 교승 스님께서 수많은 달마도를 접하신바 사나운 기운이 솟아남을 감지하시고 그원인을 찾던중 달마에게도 찍이 있음을 알아 탄생시킨 세계최초의 女子달마도와 관음 달마도는 주문후 3,4일의 시일이 걸릴수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경남창원 명주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821146-52-038830 [예금주 : 정지완]
- 연 락 처 : 055-275-1372 / 055-262-0928 ■ 휴대폰 : 019-574-0928 교승 창경

경남 창원시 중앙동 58-9번지

한국대선불교조계종 명주사 한글홈페이지 : 명주사